**<9장 탐색 부분>**

~~ 9장

[나의 서재]

(1번 고민얼굴 고민팔) 이안 : 담요가… 아, 여기있다.

이안은 담요를 챙기고 방을 나서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1번 고민얼굴 고민팔) 이안 : 얼마 전에 약 봉지 같은 걸 챙겨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몸이 안좋아서 약을 처방받았던 건가?

그 약을 찾아서 가져다 줘야겠어. //

<탐색>

서재와 거실 탐색 가능

서재는 배경을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키가 있고, 거실은 배경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키가 있음.

[나의 서재]

책장 :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있다.

화분 : 별 다른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책 : 글을 쓸 때 참고한 책들이 놓여있다. (책상 위에 있는 책 말하는 거임)

책상 : 책상 위에는 몇 번이나 고친 흔적이 남아 있는 원고가 놓여있다.

[나의 집 거실]

시계 : 고요한 분위기 속에 유난히 시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다.

그릇 장식장 :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는 장식장이다.

선반 : 평소 잡동사니를 보관해놓는 곳이다.

소파 : 약봉지를 찾지 못하고 담요를 그녀에게 건네던 중, 이안은 소파 좁은 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약봉지를 발견했다.

(소파를 탐색할 경우, 약 봉지를 찾을 수 있음. 그 뒤로는 자동 진행)

(2번 고민얼굴 기본팔)이안 : 이 약봉지… 혹시 네 것 아니야? 사실 저번에도 비슷한 약봉지를 가져온 걸 봤었거든.

약봉지를 손에 든 이안을 보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

**~~~9장 전에 준 대사파일대로 진행**

**# 10장**

[검은색 전체 화면, 중앙에 흰 글씨] <10장. 실마리>0

[나의 서재]

이안이 찾아준 약봉지 덕분에 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있었다. 1

노아와 이안과 함께가 된 날부터 계속해서 날 괴롭혀온 말 못할 나의 내적 갈등들이 사라지면서 나의 상태는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다.2

그 뒤로 더 많은 고민을 거친 결과 결국 남은 용의자는 릴리뿐이었다. 3

[릴리의 꽃집]

나는 걱정스러워하는 이안과 노아를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릴리의 꽃집으로 향했다. 4

다행히 오늘도 꽃집에는 점원 한 명뿐이었다.5

점원: 어서오세요. 저번에 오셨던 분이죠?6

어쩌죠… 안타깝게도 오늘도 릴리 부인은 출근하시지 않았어요. 7

나: 괜찮아요. 그냥 저희끼리 잠시 꽃집을 둘러봐도 괜찮을까요?8

점원: 그럼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불러주세요.9

점원은 꽤 바쁜듯 우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빠르게 장부를 정리해나갔다.10

나: 다행히도 점원이 바쁜가봐. 어서 꽃집을 샅샅이 조사해보자.11

<탐색> (노멀엔딩과 진엔딩 분기점)12

\*\* 메리골드를 두 번 탐색을 해야 증거물품을 얻을 수 있음(1차, 2차 탐색 대사가 달라짐)

\*\* 메리골드를 두 번 누르지 않고 카운터(계산대)를 두 번 누를 시 노멀엔딩

아네모네: 이 꽃에는 푯말이 없는 걸 보니 판매용이 아닌 카운터를 장식하는 용도로 둔 거 같다.

내 기억대로라면 이 꽃의 이름은 아네모네다.

수국 : 보라색 수국이 이전보다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다.

로즈마리

옷자락이 살짝 스쳤을뿐인데도 좋은 향이 나는 것 같다.

장미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붉은색, 분홍색의 장미들이 진열되어 있다.

메리골드

1차 시도) 노란 꽃이 동그랗게 펴 있는 것이 귀여움을 자아낸다.

2차 시도) 화분을 유심히 보니 메리골드의 잎들 사이에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카운터:

1차) 너무 시간을 끌면 점원의 의심을 살 것 같다. 그가 바쁜 틈을 타 빨리 꽃집을 조사하자.

2차)

점원: 저 손님! 화분은 손으로 만지지 말아주시고 식물들이랑 일정 거리 유지해주세요!

\*\* 메리골드 2차 탐색 실패 하고 카운터를 두 번 누를 시 -> 노멀엔딩 루트

카운터를 두 번 누르면 아래 노멀엔딩으로 자동 진행

한창 탐색을 하던 중, 점원이 하던 일을 마쳤는지 화분들을 가까이에서 조사하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13

(3번 고민얼굴 당혹팔) 이안: 아이코 죄송합니다. 향기를 맡으려다 보니... //14

이안은 들고 있던 화분을 제자리에 놓으며 점원에게 사과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원은 우리가 신경 쓰이는 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16

나: 이거 안되겠는데…이 상태로는 더 조사하기 힘들 거 같아.17

(3번 고민얼굴 당혹팔) 이안: 그러게…오늘은 여기까지인가…//18

나: 그래도 세번째 방문인데 아무것도 안 사가면 의심을 살 거 같으니까 작은 화분이라도 사가자. 19

가급적 키우기 쉬운 걸로…20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그래. 또 나중에 꽃집을 올 빌미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을까? 21

(1번 기본얼굴 기본팔) 노아는 노란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 22

나 : 노아는 이 화분이 마음에 들어? 23

음… 그런데 어쩌지… 이 꽃은 이미 활짝 핀 상태이기도 하고24

요즘 날씨도 추워서 실내에서 키워도 금방 시들텐데… 25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그럼 이 친구는 어때? 26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로즈마리는 잘 죽지 않아서 키우기도 쉽고 겨울에는 실내에 둬도 잘 자란대. 27

그리고 잠깐 이쪽으로 와볼래 노아야? 28

(1번 기본얼굴 기본팔) 노아가 로즈마리 화분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29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어때? 꽃은 없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지?//30

노아는 로즈마리의 향이 맘에 들었는지 편안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31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허브라서 여러 음식에 넣어도 되고 로즈마리 차는 건강에도 좋아. //32

노아는 나를 잠시 뒤돌아보더니 이안에게 손짓해 이안의 귀에 무언가 소곤거렸다. 33

이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34

(8번 웃는얼굴 기본팔) 이안: 노아가 로즈마리가 마음에 든대. 이걸로 할까? 35

나: 정말? 그럼 이 화분으로 데려가자.//36

우리는 점원이 포장해준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37

노아는 피곤했는지 로즈마리 화분에 붙여줄 이름을 생각하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38

나는 노아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노아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39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노아는 잠들었나 보네. //40

나: 티는 별로 안 냈지만 아침부터 내 상태도 안 좋았고41

꽃집에서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42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긴장한 거 같아. 43

(1번 고민얼굴 고민팔) 이안: 그러게…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 44

이 정도면 꽃집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나?//45

나: 잘 모르겠어…더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46

(5번 기본얼굴 기본팔) 이안: 그러면 다음에는 더 꼼꼼히 조사해보자. 47

노아를 위해서라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48

나: 응. 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49

우리는 그 대화를 끝으로 잠든 노아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함께 잠에 들었다.50

end. < 노멀엔딩 :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 메리골드 2차 탐색 성공 시 (진엔딩 루트)

[쪽지 팝업으로]

증거물품 사진 찍듯이13

시스템 : [비밀쪽지]가 [사건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13

(꽃집 뒤편 화단을 가르키는 지도, from 아데린 이름 옆에 새 그림)

엄마가 얼마전에 꽃들에게 예쁜 노래를 들려주면 꽃들이 더 잘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릴리 부인이 주신 화분에도 매일 제가 노래를 불러준답니다!

화분의 답례로 예쁜 노래를 선물로 드릴게요! 맘에 들길 바라요!

(이건 대사 아님 쪽지에 써 있는 글임)

이안: 아데린? 아데린이라면 실종된 그 여자아이 아니야?14

나: 맞아…게다가 이 이름 옆의 그림…15

(쪽지 옆에 손수건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비교 하는 팝업)16

나 : 손수건에 있던 그 자수잖아?17

이안: 그렇다는 건…18

우리는 서둘러 꽃집 뒤편으로 향했다.19

[꽃집 뒤편]

나 : (쪽지에 나와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디일까?)20

<탐색>21

화단: 분명 이 위치인데 물건이 없어. 쪽지는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 같은데…

누군가 발견하고 치운 걸까?

예쁜 노래를 선물로 드린다니…노래를 선물하는 방법이 뭐지? 악보? 악기?

다른 포인트: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지도를 다시보자.

주의) 화단을 클릭해야 자동진행

(기억 속의 음악소리)22

노아: …!22

오르골…오르골이에요…23

노아는 여태까지 자신의 주머니에 고이 지니고 다녔던 오르골을 꺼냈다.24

그리고 무언가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눈 감는 효과 ->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25

<효과 같은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정해서 보낼 예정>

(마을 소리)26

그림: 아데린의 뒷모습26

노아: 그 날 제가 따라간 건 범인이 아닌…아데린이었어요. 26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낯선 장소와 사람들 사이에 놓인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27

그녀가 얼마 전 입양 간 아데린이라는 걸 한 눈에 알아봤어요. 28

그림: 화단에 쪼그려 앉아 있는 아데린29

노아: 따라 간 아데린은 여기 꽃집 뒤편으로 오고는 갑자기 화단으로 들어갔어요. 29

그리고 제가 아데린을 부르려는 순간…30

(문소리)31

그림: 꽃집 뒤편 문이 열림31

노아: 저기 저 문이 열렸어요.31

그림: 아데린이 문으로 들어감32

노아: 문을 연 게 누군지는 안 보였지만 아데린은 기다리기라도 한 것 마냥 곧 바로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32

그림: 화단의 오르골33

노아: 저는 아쉬운 마음에 뒤늦게 화단 쪽으로 걸어갔고 꽃들 사이에서 이 오르골을 발견했어요.33

그림: 화단의 오르골을 들고 기다리는 노아34

노아: 아데린이 두고 간 물건이라고 생각한 저는 오르골을 들고 다시 그 문이 열려 아데린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34

하지만 나온 건…35

(효과음)36

그림: 당황스러운 표정의 릴리36

그림: 그 상태에서 손을 뻗는 모습 or 놀란 표정의 노아36

[꽃집 뒤편 배경]37

꽃집에서 찾은 아데린의 쪽지 37

별장에서 발견된 아데린의 손수건 38

노아의 주머니에서 나온 오르골…39

우리가 찾은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사건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40

우리는 여태까지 정리해 온 사건 일지를 경찰에게 넘겼다. 41